

‘보수통합’ 핵심으로 떠오른 안철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포함한 보수통합

‘외연확장’ 의지...당내 의견은 엇갈려

변혁, 권은희 미국행 시사...설득 나설 듯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간 보수통합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안 전 대표의 집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받드는 모든 분과 정치적 통합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이후 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 의원, 실무협상자에는 이양

수·홍철호 의원을 내정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통합 범위로 바른정당계 의원과 우리공화당을 넘어 안 전 대표까지 설정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되는 외연확장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당내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내에서는 통합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합 대상인 유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유 대표를 향한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당 출신과의 통합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는

변혁은 ‘선(先) 창당 후(後) 통합’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과의 통합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의 의견통일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하면서 한국당발(發) 통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변혁은 안 전 대표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는 결심해주길 바라고 있다. 안 전 대표 설득을 위해 신당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권은희 의원이 미국 출국을 지를 보였다.

개혁보수를 추구하는 유 대표와 합리적 중도, 제3지대의 길을 걸어온 안 전 대표가 블록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안철수계와 바른정당계 전체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이루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전 대표를 만나 직접 만나 소통하고 변혁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변혁의 행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당적이 바른미래당인 안 전 대표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수구세력이 안 전 대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 대표를 향해서는 바른미래당을 보수연합의 제물로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이번 달 말이나 12월초까지는 결심해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때까지는 답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입국 시기는) 본인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새판을 쓴다는 의미에서 어떤 재편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보수통합이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며 “합리적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이 새판을 짜서 야권을 새로 만들어 보자고 한다면 (안 전 대표가)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패트 충돌’ 한국당 의원 60명 중 첫 출석...수사 급물살타나

나경원 원내대표 檢 조사...다른 의원들도 출석 전망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이후 출석 ‘불응’을 고수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사건이 발발한 지 6개월 만에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지난달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오긴 했지만 황 대표의 현재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경우 황 대표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9-30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충돌 이후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입건된 국회의원만 총 11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60명을 차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5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들을 소환했지만, 반쪽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사를 결론짓지 못한 채 9월10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한국당의 ‘출석 불응’ 기조는 계속됐다. 한국당은 “범여권 정당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면서 “불법 사보임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문제 삼았던 사보임 건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건 관련자들에게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당도 불출석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출석을 예고했고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지 9일 만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나 원내대표의 출석을 기점으로 그동안 미뤄져왔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당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도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이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문 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 바 있다.

검찰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5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현역 의원들이 다수 얽힌 사건을 오래 끄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총리감’ 거론 박지원 ‘김칫국 마실 순 없어’

제3지대 신당 창당 모임인 대한신당(가칭)에서 활동하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3일 ‘호남 총리론’의 후보 중 하나로 자신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의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답안밖에 지금 할 수 없다. 김칫국 마실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이끌 통일부 수장으로 강경 보수 성향의 강인덕 중앙정보부장을 기용했던 사례를 들며 “그런 상식을 뛰어넘으면서도 능력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인사를 내각에 모셔와서 일을 하면 훨씬 잘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뉴스1

손학규 “유승민, 통합 부정하며 뒤로 공천 장사...黃과 밀당”

박주선 “창당 2년만에 국정 농단한 한국당으로 회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7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8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13일 유승민 의원을 향해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보수통합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밀당이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황 대표가 한국당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임명하자 곧바로 권성동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황 대표는 유 의원 이 원 의원과 접촉했다고 말한 것

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유 의원은 (원 의원을 단장으로) 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위한 철학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하지만 정치적 모략과 술수로 몸값을 올려 공천을 얻어내려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복당과 통합을 부정하면서 뒤로는 온갖 밀약으로 공천 장사를 하는 구태 정치에서 이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박주선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내분이 악화되고, 심지어 국정을 농단한 한국당으로 회귀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초대 당대표를 지낸 한 사람으로서 죄인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